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2년 4월 28일(목) 총 3매		
담당 부서	해양항만과	담 당 자	• 해양산업팀장 나민환 ☎ 440-4846 • 담당자 정유진 ☎ 440-4847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 참가 ... 글로벌 유치 총력

- 25일부터 28일까지, 미국 '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' 참가 -
 - 월드크루즈 유치 마케팅 실시 -

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크루즈 박람회인 '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' (Seatrade Cruise Global)을 통해 전 세계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대상으로 월드크루즈 유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.

‘크루즈 산업의 회복’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470여 개 전시기관이 참여하고,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, 노르웨이즈안 크루즈 라인, 실버시 크루즈 등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와 업계 관계자 등 약 1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전문 B2B 박람회다.

크루즈 선사들이 새로운 항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, 향후 인천을 포함한 신규 크루즈 항로 개발의 포

석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선제적 마케팅이 필요하다.

인천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인천 크루즈 홍보관을 운영하고, 로얄 캐리비안, 실버시, 노르웨이지안, 셀러브리티 등 주요 크루즈 선사 대상 B2B 상담을 진행했다. 인천의 ▲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▲공항과 인접한 입지여건 ▲현지문화 체험을 포함한 다채로운 관광지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.

실버시 크루즈 관계자는 면담을 통해 “인천항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에 인상 깊었다”면서 “기항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만의 진정한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특히,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은, 향후 플라이앤크루즈(Fly&Cruise) 상품 운영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크루즈 선사들로부터 인정받았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크루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관련사진



※ 사진설명: 인천시, 인천관광공사,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4.25~28일 개최된 미국 마이애미 ‘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’에 참가해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다.